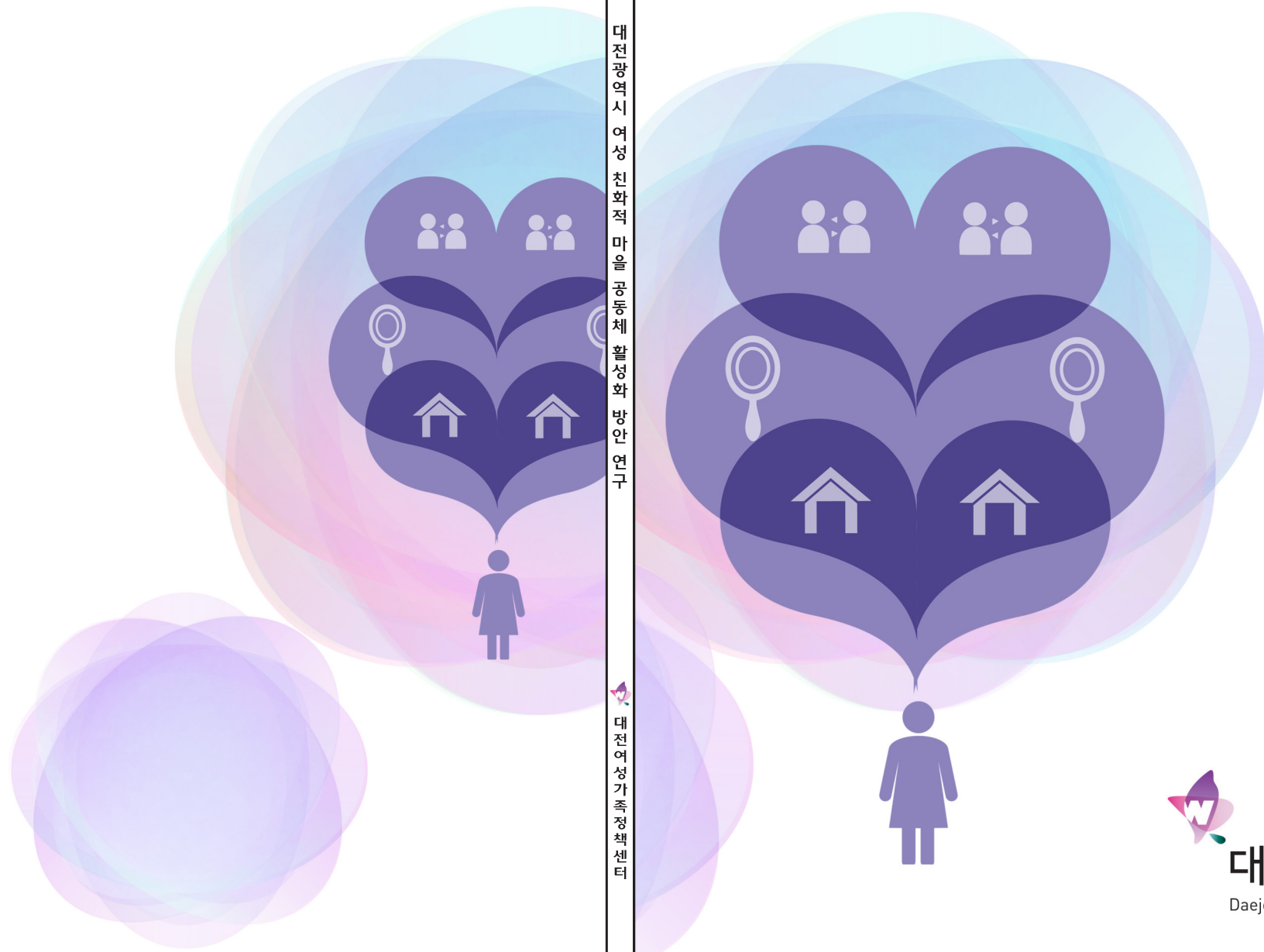


# 대전광역시 여성 친화적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주혜진 · 김성곤

대전광역시 여성 친화적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연구 2018-02

# 대전광역시 여성 친화적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주 혜 진 · 김 성 곤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Daejeon Gender Equality & Family Policy Center

<b>연구책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혜진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센터장</li> </ul>
<b>공동연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성곤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위촉연구원</li> </ul>
<b>연구도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li> <li>• 관저동 관저마을공동체연합 마을 활동가</li> <li>• 정림동 수밋들 어울벗 마을 활동가</li> <li>• 월평1동 새뚝한울 마을 활동가</li> </ul>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연구 2018-02**

발행인 박 재 목  
 발행일 2018년 8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전화: 042-530-3548 팩스: 042-530-3559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쇄: 삼화옵셋인쇄사 TEL 042-257-0957 FAX 042-255-1535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 차 례

1장 서론 .....	3
1절 연구 배경과 목적 .....	3
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5
1. 연구 내용 .....	5
2. 연구 방법 .....	5
2장 여성 친화적 마을 공동체의 이해 .....	9
1절 마을 공동체 관련 연구 .....	9
2절 여성친화도시와 젠더 거버넌스 관련 연구 .....	11
3절 여성 친화적 마을 공동체의 의미 .....	14
3장 대전시 서구 지역 마을 공동체 사례 탐색 .....	19
1절 마을 공동체 활동 현황 .....	19
1. 개요 .....	19
2. 관저동 ‘관저마을 공동체연합’ .....	19
3. 정림동 ‘수밋들 어울벗’ .....	28
4. 월평 1동 ‘새뜸한울’ .....	37
2절 마을 공동체 활동의 어려움 .....	39
1. 마을 활동가의 참여와 성장 .....	39
2. 일이 되어버린 마을 활동 .....	42
3. 경제적 부담 .....	43
4. 소통의 어려움 .....	44
5. 지원 체계의 지속성 부족 .....	45
6. 활동 공간 마련의 어려움 .....	46
3절 소 결 .....	48

4장 여성 친화적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안 .....	51
1절 추진 주체의 역량 강화 .....	51
2절 마을 공동체 사업 지원 체계 개선 .....	53
1. 중간지원조직의 확대 .....	53
2.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중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확대 .....	55
3. 중·장기적 계획을 바탕으로 공동체 지원체계 구축 .....	57
4. 마을 활동가의 처우 개선 .....	57
3절 젠더 거버넌스의 구축 .....	60
1. 젠더 거버넌스의 정의 .....	60
2. 여성 친화적 마을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젠더 거버넌스 .....	60
참고문헌 .....	63
부 록	
부록 1.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	65
부록 2.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 .....	72
부록 3.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 .....	78

## 표 차례

[표 2-1] 지역(마을) 공동체 선행 연구 분석 .....	11
[표 2-2] 여성친화도시와 젠더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 .....	14
[표 4-1] 5대 목표별 사업 추진 현황 분석 .....	55

## 그림 차례

[그림 3-1] 해뜰 마을 어린이 도서관 .....	22
[그림 3-2] 관저마을신문 .....	23
[그림 3-3] 관저 품앗이 공동체 .....	24
[그림 3-4] 청소년 교육 공동체 ‘꿈앗이’ .....	25
[그림 3-5] 한살림 관저마을 모임 .....	26
[그림 3-6] 청소년 드림오케스트라 .....	27
[그림 3-7] 수밋들 어울벗 비전 .....	29
[그림 3-8] 정림동 어울림 벽화거리 .....	30
[그림 3-9] 수밋들 어울벗 활동 1 .....	34
[그림 3-10] 수밋들 어울벗 활동 2 .....	36
[그림 3-11] 수밋들 어울벗 활동 3 .....	37
[그림 3-12] 새뜸한울 활동 .....	38
[그림 4-1] 여성 친화적 마을 공동체를 위한 젠더 거버넌스 .....	60



#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1장





## 1절 연구 배경과 목적

- 현대사회는 다양한 사회위기에 직면해 있음. 단순한 노동의 상실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사회구조의 변화와 탈산업화의 부작용으로 공동체의 붕괴, 가족의 해체, 경제 위기 등 다양한 형태로 모든 계층에게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음(김학실, 2014)
- 한 개인이 직면하는 노동의 상실은 가족 빈곤으로 연결되고 빈곤의 문제는 가족의 갈등으로 그리고 가족 해체라는 극단의 상황으로 전개됨. 지역단위의 가족해체는 공동체의 위기로 연결되며 이러한 위기는 지역사회의 위기로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의 위기로 발전할 수 있음(김학실, 2014)
-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했으나 그 반대급부로 비수도권지역의 황폐화를 가져왔음
- 전통적인 촌락공동체가 급격히 쇠퇴하고 도시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단순한 공간적 이동과 도시의 팽창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이재열, 2006) 빈부격차, 사회적 갈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악화, 상호불신, 무관심 등 기존의 국가와 시장의 운영으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가 발생함(박병춘 · 최현석, 2012)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가나 시장에 의존하지 않는 삶의 질 향상의 주체로 지역(마을) 공동체를 주목하는 논의들이 대두되었음
-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화가 시작되면서부터 1980년대까지 자생적으로 도시 저소득층이 중심이 되어 상호부조운동, 재개발 및 강제철거에 맞선 생존권 투쟁을 위해 공동체를 구성하고 활동하였으며 90년대에는 중산층의 성장에 따라 생활과 밀착된 형태의 공동체 활동이 전개되었음. 그리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부를 대립적 관계로 보지 않고 상호 협력을 통한 파트너 관계로 인식하면서 민관 협치를 통한 협력형 공동체 활동으로 차근차근 변화하고 있는 상황임(박재묵 외, 2014)

- 하지만 최근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 삶의 질을 중요시 하는 시민의식의 성숙, 지역발전에 대한 정부의 인식변화 등의 영향으로 지역(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대폭 증가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역(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주도의 정책 추진으로 인해 정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방편적 공동체가 출현하거나 공동체의 자립성 및 지속성이 취약한 문제점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곽선화 · 문홍석, 2009; 배진영, 2010; 염돈민, 2010; 김광선, 2011, 유정규,2011, : 박병춘 · 최현석, 2012에서 재인용)
-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과 함께 공동체 참여 주체의 성별 특성을 파악하고 성별 수요와 특성을 반영하는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활성화 방안 논의도 필요함
- 그동안 지역 공동체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체의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춰왔음(이재열, 2006; 윤일성, 2006, 박병춘, 2012; 김학실, 2014 등)
- 모든 정책 영역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나 지역개발이나 마을공동체 형성에서 성별 특성이나 성별관계로 인한 문제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음(조연숙, 2015)
- 지방자치단체별로 여성이 행복한 도시,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같은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으나 주로 공간 · 시설의 여성친화성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조연숙, 2015) 지역(마을) 공동체와의 연계 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면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태임
- 성 주류화의 도구로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젠더 거버넌스, 시민참여단의 역할, 여성단체의 활동에 관한 연구(김영신, 2017; 김혜정, 2018; 임혜경, 2018; 최유진, 2014 등)들은 진행되었으나 지역(마을) 공동체와 여성친화도시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는 없음.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대전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서구 지역 마을 공동체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탐색하여 여성 친화적 마을 공동체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함

## 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1. 연구 내용

- 마을공동체의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여성친화도시와 젠더 거버넌스 이론을 탐색 함
-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서구 지역의 마을 공동체 중 대표성을 갖는 마을 공동체를 선별하였음
- 해당 마을 공동체 활동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또한 콜로키움을 통해 마을 활동가와 담당 공무원들이 서로 이해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 대전광역시 서구청의 여성친화도시 시행 계획을 바탕으로 5년간의 추진과정을 검토하고 분석하였음
- 이러한 탐색과 분석을 바탕으로 여성 친화적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젠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탐색하였음

### 2. 연구 방법

- 지역(마을) 공동체, 여성친화도시, 젠더 거버넌스에 관한 문헌을 수집하고 분석하였음
-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의 마을공동체 활동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마을 공동체의 이슈를 파악하고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

- 연구자, 마을 공동체 활동가, 서구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상호간의 현황 파악 및 애로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한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음
- 대전광역시 서구청 여성친화도시 사업 자료 (2014년~2018년)를 분석하였음

## 여성 친화적 마을 공동체의 이해

1. 마을 공동체 관련 연구
2. 여성친화도시와 젠더 거버넌스 관련 연구
3. 여성 친화적 마을 공동체의 의미

## 2장



## 1절 마을 공동체 관련 연구

- 급격한 경제개발을 바탕으로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지역공동체는 파괴되었음.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는 파괴된 지역공동체의 복원은 물론 도시화로 인해 파생된 사회적, 도덕적, 환경적 문제의 해결을 의미함.
- 즉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발생한 사회의 양극화, 농어촌지역의 일자리 문제, 개인주의의 만연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상황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저하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음
- 또한 중앙정부 주도 발전의 한계성을 인지하고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발전의 필요성이 높아짐으로써 주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향식 발전은 개인과 지역의 요구를 손쉽게 반영할 수 있으며 이는 곧바로 지역 발전과 연결되고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음.
- 이재열(2006)은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역사회 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목적과 정체성의 확립, 조직화와 리더십의 구축, 구체적인 공간과 시설 및 인프라 구축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또한 이 세 가지 문제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긴밀한 연계를 가진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박병춘 · 최현석(2012)은 정부 지원 유 · 무로 분류한 지역공동체를 비교 분석하여 지역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조건과 환경을 규명하고 정부 지원사업의 협력 필요성 및 바람직한 정책 지원서비스 방안을 연구하였음. 이 연구에서는 풀뿌리 운동에 주력하고 있는 지역공동체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관련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고, 민간 자율 지역공동체에는 재정, 전문 능력 제고, 환경/인프라 구축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



가 있다고 하였음. 또한 정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간지원 조직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윤일성(2006)은 도시 빈곤지역의 주거지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민관협력의 강화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음.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과 정부간의 협력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공동체 계획이 필요하며 이 계획에는 지역 공동체의 물리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지역 주민의 경제적·사회적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 지역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함
- 김학실(2014)은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지역공동체의 위기는 그동안의 산업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가 누적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며, 농촌지역의 붕괴, 마을 단위의 공간적 거리감의 붕괴와 더불어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붕괴됨으로서 나타나는 유대감 저하가 문제점이라고 지적함. 공동체 위기를 해결하기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두 마을의 사례지역을 분석하여 공동체주도발전전략이 성공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분석하였음
- 한편 마을 공동체는 다양한 참여주체에 의해 다양한 특성과 차이가 있고, 이러한 특성과 차이를 성인지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한 시도(조연숙, 2014)도 있음. 조연숙(2014)은 마을공동체의 구성원 간, 특히 성별관계에서 주요 의사 결정 지위에 대한 차이, 성별에 따른 활동시간의 제약, 자녀 양육이나 돌봄의 책임, 이성에 대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한계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마을공동체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별을 고려한 대표성의 확보와,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지역 공동체란 용어는 현대 사회에서 목적과 형태에 따라 매우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공동체’라는 용어 보다는 협의의 의미로 ‘마을 공동체’를 사용하고자 하며 ‘일정 공간을 공유하며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자율 조직’이라고 정의하고자 함

**[표 2-1] 지역(마을) 공동체 선행 연구 분석**

연구자	주요내용
이재열 (2006)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공동체성의 극대화 전략
박병춘·최현석 (2012)	지역 공동체의 자율적 성장을 위한 조건과 환경 규명 중간 지원 조직체계 개선 필요
윤일성 (2006)	지역의 공동체 계획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조 주민 참여의 확대 방안 모색
김학실 (2014)	두 마을의 사례를 통해 공동체주도발전전략의 성공 요건 분석
조연숙 (2014)	마을 공동체 사업의 추진에서 성평등 가치 제고의 필요성 강조

## 2절 여성친화도시와 젠더 거버넌스 관련 연구

-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의 공간적, 물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안전과 편의, 참여와 성장에 대한 여성의 일상적 요구를 반영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삶의 질 구현을 위한 종합적인 지역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임(여성가족부, 2010)
- 따라서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의 성 주류화’를 의미하며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통해 여성이 지역의 정책결정 과정에 완전한 참여를 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모든 부서의 사업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여 개선하며, 궁극적으로 지역 정책 전반이 성평등하게 전환되도록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를 기초지자체에서 실행하는 지역 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하고 5년간의 협약을 통해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대전시는 2013년에 서구가 가장 먼저 여성친화도시 협약을 맺었으며 2015년 동구와 대덕구, 2016년에 유성구가 지정을 받은 상태임. 서구는 2018년이 여성친화도시 마지막 해로 2차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

한 준비 중에 있음

- 2009년 익산시를 시작으로 시작된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2018년 현재 86개 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나, 각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대부분은 기존부터 추진해 왔던 타 사업 내용과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성평등에 대한 고려보다는 표면적인 성과 중심의 하드웨어 사업에 치우치고 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박혜은, 2017)
- 그동안 각 지자체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사업으로 주로 추진해 온 화장실 및 편의시설 확충, CCTV 설치, 안심벨 설치, 도로 시설물 개선 등과 같은 사업들은 도시 공간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필요하며 중요한 사업임
- 그러나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시작 된지 10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는 공간 인프라 구축이라는 물리적 환경 조성 및 개선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에의 접근이 필요하며 새로운 시도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시기임
- 초기 여성친화도시 관련 연구는 제도 및 평가, 도시 계획 및 공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음. 현재까지도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는 빠 지지 않고 언급되는 주제임
- 한편,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여성친화도시가 양적인 성장은 증가하였으나 지역사회의 성 주류화를 안착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젠더 거버넌스의 실질적 강화와 다양한 계층의 시민 참여단 구성 및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여성친화도시는 성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며 최종적으로는 젠더 거버넌스라는 성 주류화 추진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다양한 시도 중에 하나라고 보는 최유진(2014)은 현재까지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례들은 기초지자체가 성 평등을 주요 행정 이념으로 받아들이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나 여성의 여건과 환경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평가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성에 대한 임파워링, 여성의 목소리를 증시하는 민관협력과 같

은 낮은 시도를 추진할 역량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따라서 시민 참여단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참여과정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행정 내에서도 구체적인 지역 현실을 공유한 협업을 통해 여성에게 젠더화된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임혜경(2018)은 여성친화도시의 시민참여는 젠더 문제 해결을 위한 젠더 거버넌스이자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권한 행사를 중시하는 로컬 거버넌스라고 정의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 참여단의 민주적인 참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음. 로컬 거버넌스로서 젠더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주성의 측면에서 참여의 형평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민주성의 가치인 참여의 형평성, 시민주도성, 책임성의 강화가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할 것이라고 제시하였음
- 김혜정(2018)의 연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젠더 거버넌스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 아니라 시민참여단을 젠더 거버넌스 관점에서 분석하여 지역의 성평등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음. 결론적으로 젠더 거버넌스의 중요한 주체인 시민참여단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의 보조적 지원과 시민참여단 스스로의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안태윤 외(2016)은 젠더 거버넌스가 작동되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분석해서 젠더 거버넌스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참여자들에 대한 교육과 학습, 리더에 대한 정책적 지원, 참여자 활동비 지급체계의 제도화, 광역자치단체의 젠더 거버넌스 활동 지원 등을 방안으로 제안하였음
- 한편 한국의 여성운동 성장과 여성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의 성 주류화 정책에서 나타난 젠더 거버넌스의 특징을 탐색한 김경희 외(2017)의 연구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은 여성단체의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단체들이 성 주류화의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 또한 젠더 거버넌스를 ‘여성운동의 제도화’라는 용어로 단순히 평가해서는 안 되

며 젠더 거버넌스의 차별적 특성을 이해하는 가운데 한국의 여성운동이 축적해온 참여의 정치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김영신(2017)은 여성단체의 역량을 강화시켜 젠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였음. 여성단체의 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여성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구축과 재정 안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젠더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젠더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기관별 역할 분담이 필요하고, 이슈에 따라 사안을 분류해서 체계적으로 젠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음

**[표 2-2] 여성친화도시와 젠더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주요내용
최유진 (2014)	여성친화도시 추진 성과를 점검하여 젠더 거버넌스의 구축 가능성 탐색
임혜경 (2018)	경기지역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현황과 시민참여 분석을 통한 민주적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탐색
김혜정 (2018)	시민참여단의 활성화 요건으로 구성원의 다양성 확보 및 역량 강화, 능동적 정책 참여의지를 제안
안태운 외 (2016)	젠더 거버넌스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
김경화·나성은 (2017)	한국 사회에서의 젠더 거버넌스의 구축 형태 파악 및 여성운동의 측면에서의 해석
김영신 (2017)	광주지역 여성단체 현황 분석, 여성단체 간 연대와 협력 방안 제안

### 3절 여성 친화적 마을 공동체의 의미

-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적은 지역정책의 성 주류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의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부서 사업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여 궁극적

으로 지역 정책 전반이 성평등하게 전환되도록 추진하는 것임(여성가족부, 2015)

- 또한 소극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여성정책의 활성화를 유도함은 물론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도시 공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전반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음
- 한편 각 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라도 ‘여성친화’ 혹은 ‘성 주류화’ 정책이 지역 정책으로서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추진 주체간의 튼튼한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여성 친화적 마을 공동체는 기초지자체와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이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성 주류화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주체임
- 여성친화도시의 5대 목표 중 하나로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제안하고 있는 만큼 참여하는 여성 마을 활동가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마을 공동체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여성친화도시가 추구하는 목적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도시 생활 전체의 성 주류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을 공동체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를 생성·소비하는 직접적인 집단이자 지역 발전 활성화의 문을 열어줄 열쇠의 역할을 담당함
-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목표의 수립, 마을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의 구축, 자율적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등이 필요하며 특히 마을 공동체 활동의 대부분을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상황에 미루어 볼 때 마을 공동체는 여성 친화적 공동체와 동일한 의미 혹은 지배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야 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 친화적 마을 공동체를 **‘일정 공간을 공유하며 공동의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여성 친화적 마을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다양한 계층이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협력하는 조직’**으로 이해하고자 함



# 대전시 서구 지역 마을 공동체

## 사례 탐색

1. 마을 공동체 활동 현황
2. 마을공동체 활동의 어려움
3. 소 결

## 3장





# 1절 마을 공동체 활동 현황

## 1. 개요

-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서구 지역 내에서 운영 기간, 목적, 활동성 등으로 대표성을 갖는 공동체 3곳을 선정하였음.
- 선정된 공동체는 관저동 ‘관저마을 공동체연합’, 정림동 ‘수밋들 어울벗’, 월평1동 ‘새뚝한울’이며 공동체 중에서 관저마을 공동체연합이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활동 측면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우수 공동체 사례로 평가할 수 있으며 새뚝한울은 초창기 공동체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공동체의 사례임
- 연구자가 직접 각각의 공동체에 현장방문 및 인터뷰를 1회씩 진행하였음. 인터뷰는 공동체의 실제 현황을 체험하기 위해 사전에 별도의 질문 내용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에서 즉석으로 질문과 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음
- 3곳의 공동체 인터뷰를 마친 후 공동체 활동가와 대전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담당자 및 지역공동체 담당자, 공동체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 기관 종사자 등이 참여한 “젠더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음
- 3회의 공동체 인터뷰와 1회의 젠더 콜로키움에서 이야기된 서구 지역 공동체의 생생한 현장을 소개함

## 2. 관저동 ‘관저마을 공동체연합’

- 관저마을 공동체연합은 관저동에서 기존에 활동하고 있던 6개의 단체가 관저동 공동체들의 연대 및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2014년 2월 결성되었음
- 이후 2017년에 관저종합사회복지관이 추가되어 현재 총 7개의 단체로 연합을 구성하고 있음

- 관저마을 공동체연합의 7개 기관은 '해뜰마을 어린이 도서관', '관저마을신문', '관저 품앗이 공동체', '교육공동체 품앗이', '한살림 관저 마을모임', '청소년 드림오케스트라', '관저종합사회복지관' 임

**[대전 시티 인] 기획하고 실천하는 '관저공동체연합'**

- 중도일보, 2016.12.12

대전 서구 관저2동은 서대전IC가 있는 서남부권 중심지로 대전 팔경 중 하나인 구봉산이 자리하고 있다. 인구 95%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소규모 농가가 있는 도농 복합지역이다. 규모 면에서 빠르게 확장하는 관저2동은 주민이 주인이 돼 각종 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해 살기 좋은 마을로 이끄는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된 곳이기도 하다. 관저 4·5지구 도시개발로 앞으로 더 커질 관저2동을 들여다본다.

**▲주민 공동체로 하나 되는 '관저동공체연합'**

관저2동에는 6개 마을단체가 자율적으로 모여 '관저공동체연합'을 운영하며 화합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4년 2월 설립한 관저공동체연합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관저마을 신문사', '관저품앗이 공동체', '교육공동체품앗이', '서구 청소년 드림오케스트라', '한살림관저마을', '해뜰마을어린이도서관' 6개 단체가 모였다. 이들은 매년 10월이면 마을공동체 문화 확산과 주민 화합을 위한 마을운동을 열고 있다. 지난 10월 15일에도 관저동 신선암 공원에서 공연과 놀이마당, 먹거리 장터, 사진전 등과 함께하는 운동회를 개최해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구봉산과 함께하는 관저2동**

구봉산을 끼고 있는 관저2동은 주민과 산을 위해 매년 정월대보름마다 구봉산 신성봉 아래서 산신제를 개최한다. 구봉풍물예술단 단원이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제와 길놀이, 민속놀이 등을 펼친다. 구봉산에서는 또 매해 1월 1일 주민자율방범대가 해돋이 등산객에게 떡국을 제공한다. 해돋이를 위해 산에 오르는 주민을 위해 성애노인요양원 주차장 주변에서 자율방범대 47명이 등산객에게 떡국과 음료를 나눠준다. 주민이 쉽게 찾는 이곳은 이 같은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도 주민 걸을 지키고 있다.

## 1) 해뜰마을 어린이 도서관

- 해뜰마을 어린이 도서관은 아이들에게 친근한 마을을 만들어 주고 싶은 목적으로 2007년에 개관하였음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친근한 마을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마을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어서 모여서 아이들이랑 놀 수 있는 걸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다가 아이들이 놀 수 있으면서 우리도 놀 수 있는 사랑방을 만들어보자. 거기에 교육적인 것도 넣으면 좋겠다. 또 우리는 사랑방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게 필요한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때 우리 마을에 인구는 몇 만인데 도서관이 없었어요. 삶을 이야기하고 컴퓨터 이용할 수 있는 사랑방 같은, 이웃집 같은 도서관이 없었던거예요. 그래서 작은 마을 도서관을 만들어볼까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동장을 100번쯤은 찾아 갔었던 거 같아요. 그때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어요.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동장님을 만나면서 동사무소에 임시 관저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책 읽는 모임을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필요성을 많이 느끼기 시작 하더라고요. 2007년 4월에 결국 도서관을 하나 개관을 하게 되었요. 도서관 이름은 공모를 통해서 해뜰마을어린이도서관이라고 정했고요 (정림동 마을 활동가)

- 책과 함께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성장을 추구하며 자원 봉사활동과 후원으로 운영 중임
- 자녀의 이름으로 책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하여 책을 기부하거나 후원금으로 책을 구입해서 책표지에 후원자와 자녀 이름을 붙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부와 나눔의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어린이의 교육, 문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아리 활동과 교육을 통해 마을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음

- 대전시 녹색발전소 1호 도서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아이들과 함께 하는 절전소 모임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해뜰마을 어린이 도서관 모습

녹색 절전소 활동

**[그림 3-1] 해뜰마을 어린이 도서관**

자료 : 관저공동체연합

## 2) 관저 마을신문

- 관저 마을신문은 2011년 11월에 창간된 대전 최초의 마을신문임
- 매월 초 1회, 1만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관저지역의 여러 가지 소식을 담아서 발간하고 있음
- 마을의 소통과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 중임
- 2015년 관저 마을신문사 협동조합 등록
- 2018년 6월 현재 66호 발행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사랑방이 만들어지고 나서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내 아이의 발전, 친구를 만들고 싶은 욕구에서 모든 아이들이 잘되면 좋겠고 마을이 행복해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글 쓰는걸 좋아하는 엄마들이 모여 지금의 마을 신문사를 창간하게 되죠 (정림동 마을 활동가)



관저 마을신문 창간호

관저 마을신문 기사 내용

[그림 3-2] 관저마을신문

자료 : 관저공동체연합

### 3) 관저 품앗이 공동체

- 2004년 온라인 커뮤니티로 시작된 관저동 아줌마 커뮤니티 모임
- 1700여명의 온라인 회원과 100여명의 봉다리(지역화폐)회원, 5명의 운영자로 구성
- 2010년 품앗이 마을 카페 개설. 행정안전부로부터 자립형 지역공동체로 선정됨
- 2012년 대전시 마을 기업 인증
- 공유공간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소통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동체 활동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담당
- 관저 마을신문, 교육공동체 품앗이의 활동 공간 제공
- 아줌마 놀이터인 ‘품앗이 마을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천연비누 및 육아용품 판매, 어린이 드레스 대여, 품앗이 강좌, 관저 벼룩시장을 운영하고 있음

마을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들어보자 해서 온라인 카페를 개설해요. 카페를 개설하니깐 각자 잘하는 걸 얘기하는 엄마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서로 잘하는 걸 물물 교환하는 건 어때요? 해서 품앗이 마을 카페가 생겨요. 관저 품앗이 공동체가 그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부끄럽지만 내놓고 그걸 사람들이 알아주면서 같이 공유하는 모임을 확보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관저 품앗이 마을 카페라는 장소도 확보를 한 상태구요 (정림동 마을 활동가)



공예품 만들기 강좌 수업

품앗이 공동체 생산품

[그림 3-3] 관저 품앗이 공동체

자료 : 관저공동체연합

#### 4) 청소년 교육 공동체 ‘꿈앗이’

- 2013년 관저 마을 신문을 통해 참가자 모집
- 2014년 교육공동체 꿈앗이 협동조합 설립.
- 2017년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대전형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
- ‘꿈앗이’ 은 ‘꿈을 가지다’라는 뜻으로 다양한 체험을 통한 청소년의 포래 문화 만들기 프로그램 제작과 진행을 하고 있음
- 청소년들이 직접 문화제를 기획하고 학습동아리를 운영하여 어린 후배

들을 가르치고 같이 고민하고 놀아주는 청소년 중심의 공동체임

품앗이 공동체를 만들고 활동할 때 아이들은 3살 4살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성장하니까 청소년이 되는 거예요. 그때 또 엄마들과 청소년이 된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을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관저 청소년문화제를 만들어요.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마을에서 놀아보자. 그래서 청소년교육공동체가 이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정림동 마을 활동가)



관저 청소년 문화제 기획회의

관저 청소년 문화제

[그림 3-4] 청소년 교육 공동체 ‘품앗이’

자료 : 관저공동체연합

## 5) 한살림 관저마을 모임

- ‘한살림’은 자연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마음을 농사짓고 물품을 만드는 생산자들과 이들의 마음이 담긴 물품을 믿으며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함께 결성한 생활협동조합임
- 한살림 관저 마을 모임은 2013년에 매장을 열면서 관저동의 다른 연합공동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특히 관저공동체연합의 행사에 필요한 먹거리는 전적으로 한살림 관저



마을에서 준비하고 관리하고 있음

- 관저동 일대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 안전한 먹을거리와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음



지역민과 함께 하는 하지문화제

한살림 요리교실

### [그림 3-5] 한살림 관저마을 모임

자료 : 관저공동체연합, 한살림대전 홈페이지 (<http://dj.hansalim.or.kr/?p=10844>)

## 6) 청소년 드림오케스트라

- 2013년 관저문예회관의 '꿈을 연주하는 청소년 드림 오케스트라 프로젝트'로 창단
- 2013년 ~ 현재 찾아가는 음악회 연주 봉사
- 2016년 ~ 현재 서구 청소년 드림 오케스트라 작은 음악회 개최
- 2017년 구봉산 관저마을축제 공연
- 2017년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대전형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
-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과 재능기부 활동으로 청소년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적 소양 마련

우리가 2013년에 관저문예회관을 통해 오케스트라 관련된 사업을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오케스트라고.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모든 게 무상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그런데 지원금이 끊기고 나니까 오케스트라가 없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그때 한분이 우리 마을에도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좋겠으니까 최대한 각자 부담을 해서 만들어보자 해서 그때 10명 정도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활성화 되어 있어요. 아이들의 재능기부로 찾아가는 음악회도 계속 하고 있고 우리 마을 축제나 행사 때도 도와주고 있고, 정기 연주회도 하고 있구요. 2017년부터는 다행히도 대전시 사회적자본 지원센터의 공모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정림동 마을 활동가)



열린음악회 행사

오케스트라 연습 장면

[그림 3-6] 청소년 드림오케스트라

자료 : 관저공동체연합

## 7) 관저종합사회복지관

- 지역 공동체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공동체와 같이 활동을 하고자 2017년부터 공동체연합에 참여함
- 사회복지법인 성애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관저동 일대의 사례관리사업, 교육사업,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지원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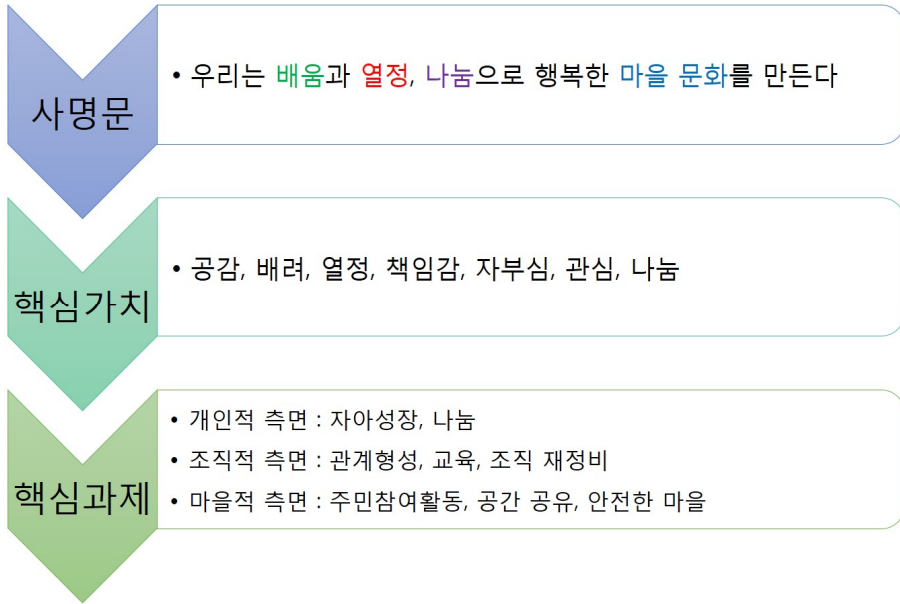
- 공동체에게 필요한 공간을 공유해주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관저공동체연합을 지원하고 있음

이중에 조금 다른 하나가 관저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작년에 같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공동체 활동을 함께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함께 한다면 서로 도움 일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같이 시작했어요. 같이 하면서 좋았던 게 공간을 공유해주시면서 회의, 행사를 하는데 무상으로 사용을 하게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정림동 마을 활동가)

### 3. 정림동 ‘수밋들 어울벗’

#### 1) 비전

우리 마을 공동체는 초기에는 그냥 사자센터의 지원금을 받아서 만들어 보고 싶은걸 만들어보고 행사도 하면서 좋았어요 그런데 3년 정도 지나니까 의욕이 떨어지더라구요 이걸 왜 하고 있지? 무슨 필요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치관이 없고 비전이 없어서 그런 거였죠. 그래서 한번 사명문을 만들어보자 했어요. 다행히 정림동 사회복지관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게 되었어요. 우리는 열정과 배움, 나눔으로 행복한 마을 문화를 만든다. 이걸로 만들고 나니까 우리의 방향성이 생기는 거예요. 마을 활동하시는 분들이 활동에 대한 목표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림동 마을활동가)



[그림 3-7] 수밋들 어울벗 비전

## 2) 수밋들 어울벗 발자취<sup>1)</sup>

수밋들은 정림동의 옛 이름이에요. 어울벗은 어울린다는 뜻이구요. 우리 마을 활동가들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경력단절여성이며 엄마이었기 때문에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 둘째 마을스런 마을문화 만들기, 셋째, 재능기부를 통한 봉사를 목표로 했죠. (정림동 마을활동가)

### ○ 2013년

- 수밋들 도서관을 이용하는 엄마들의 모임 생성
- 아프리카 신생아 모자뜨기 봉사활동을 계기로 공동체에 대한 인식
- 4월 수밋들 어울벗 창단
- 2013년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선정 (벽화그리기)
- 8월 정림초등학교 뒤편 골목 벽화 그리기 사업 진행

1) 수밋들어울벗 내부 자료를 기초로 주요 활동들만 정리함

- 10월 수릿들 축제 체험부스 운영(천연화장품 만들기, 종이접기, 풍선 공예, 떡거리 등)
- 활동가 및 어린이 자기계발 교육 실시

우범화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릿들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우리가 벽화를 그려보자 해서 학교의 도움을 받아서 벽화거리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시장님도 직접 찾아 오시고 그 뒤로 서구청에서 가로등도 설치해주더라고요. 그 뒤로 이 장소를 저희가 계속 관리하면서 행사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정림동 마을 활동가)



벽화 작업 중인 마을 주민들

벽화거리에서 진행되는 플라마켓

### [그림 3-8] 정림동 어울림 벽화거리

자료 : 정림동 수릿들어울벗

#### 〈복지이야기〉 ‘정림동 100m의 기적’

- 금강일보 2015.3.16.

황의석 정림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지난 2013년 대전형좋은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 시작됐다. 정림동 젊은 업

마을의 모임인 '수밋들어올벳'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응모했고 500만 원 지원에 선정됐다. 벽화사업 장소가 있는 길은 정림동 어린이공원과 초등학교 셋길로 배수구가 없고 응달이 저 언제나 습하고 어두운 길이었다.

청소년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배피우거나 밤에 노는 장소가 돼있었으며 어린이 공원으로 아이를 데리고 산책 나온 부모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이 길을 깨끗하고 밝은 분위기로 바꾸자는 의견이 모여 벽화사업이 정해졌다. 대전형 좋은마을만들기 사업비 총 500만 원 중 150만 원을 벽화사업에 배정했고 야심차게 작업을 시작했다. 벽화전문가를 찾아 물어보니 전문가가 그러면 100m 벽화에 2000만 원 견적이 나온다는 말을 들었다. 이것이 벽화그리기에 첫 번째 닥친 문제였다. 정식예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으로 이 사업을 완성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문제는 100m나 되는 담장을 어떻게 청소할 수 있는 가였다. 습기가 많아 이끼가 끼어있었고 오래 돼 시꺼먼 때가 벽면에 절어 있었다. 주민들 20명으로는 어렵도 없는 청소작업이었다. 그러나 이 청소작업이 안된다면 벽화를 그릴 수가 없었다. 과연 페인트작업을 해도 괜찮을 만큼 청소를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 어려움은 벽화 도안이었다. 벽면에 굴곡이 많고 울퉁불퉁해 일반적인 벽화마을에서 볼 수 있는 벽화는 그릴 수가 없었다. 한 달 이상 고민을 해도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디자인을 결정할 수가 없었다. 벽화를 해놓고 두고두고 주민들에게 싫은 소리를 듣는 것은 아닐까?

수밋들어올벳은 이 세 가지의 난관을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선택해야만 했다. 하나같이 녹록치 않은 과제였다. 회의를 통해 일단 해보자고 의견을 모았고 청소부터하기로 했다. 주민 10명이 장갑을 끼고 한손에는 철술, 한손에는 빗자루를 들고 담장 앞에 서있었다. 시꺼먼 100m의 담장과 10명의 주민, 마치 다윗과 골리앗을 연상시켰고 돈키호테를 떠올리게 했다. 포기하지 않았던 주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도착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한 분의 지인이 살수청소 전문가였던 것. 이렇게 한 가지 어려움은 예상하지 못했던 도움으로 해결됐다.

청소를 마쳤지만 예산부족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다. 150만 원은 페인트비용으로도 부족한 예산이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벽화사업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가족단위로 참가하도록 해 마을벽화를 함께 꾸미는 것이었다. 아이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참가비를 받

는 다면 부족한 예산을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인근 초등학교를 찾아가 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고 흔쾌히 도움을 얻어 60가정 130여 아동과 부모들이 참여했다. 마지막 가장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벽화를 그릴 것인가였다.

주민들이 벽화그림을 무료로 봉사해 줄 전문가를 찾아보았고 마을에 있는 미술학원장으로부터 도와주겠다는 허락을 받아내었다. 미술학원장은 당시에 10m로 알아들어 그 정도는 당연히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승낙했는데 현장에 와서 보니 100m여서 많이 놀랐다고 한다.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벽화 도안과 스케치를 완성해 줬다. 또 벽화 그리는 당일 학원생들과 함께 지도해 아름다운 벽화가 탄생할 수 있었다.

주민들이 함께 만든 벽화는 모두의 것이 됐고 마을의 자랑이 됐다. 마을 주민의 성공경험은 지난해 벽화거리 1주년행사로 이어졌고 올해에도 정기적인 프리마켓을 개최할 계획이다. 정림동의 100m의 기적은 지역공동체회복에 좋은 선례로 남을 것으로 기대한다.

#### ○ 2014년

- 1월 방학특강(어린이 난타, 계란빵 만들기, 비누 만들기, 역사수업 등)
- 3월 주민과 함께 만드는 텃밭 가꾸기 사업 추진
- 5월 정림사회복지관과 공동으로 어르신 대상 '자장면블루스' 봉사
- 9월 어울림 벽화거리 1주년 기념식
- 11월 가을걷이 전통마당 체험부스 운영 및 김장봉사

마을 활동가들은 정말 공간이 필요해요. 만약 우리 수릿들에 공간이 없었으면 이런 활동을 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다행히 복지관에서 공간을 내주셔서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다른 공동체를 보면 월세를 내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을 보면 나중에 월세 때문에 와해되는 경우도 있어요. 공간에 대한 부분은 정말 어딜 가셔도 항상 말씀드리는데 안타깝게도 들어주지를 않아요. 이게 없으면 공동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공간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림동 마을 활동가)

뭔가를 배우고 싶은데 경단여성이기 때문에 남편의 돈을 쓸 수는 없으니

까 사자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자기 계발 교육을 많이 배웠어요. 그러다보니 그걸 배워서 마을로 환원을 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처음 우리는 마을이, 동네가, 사람이 뭔지를 몰랐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만족을 하다보니까 베풀고 배운 걸 펼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정림동의 특색은 어르신이 많아요. 그리고 산과 강이 있어서 한번 들어오면 나가질 않아요. 그리고 정림동만의 문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마을만의 문화를 만들어보자 하게 됐어요. (정림동 마을활동가)

### ○ 2015년

- 3월 영화로 이해하는 아이들의 교육
- 5월 차와 음악 그리고 마을이야기 (차를 나누면서 마을 설문조사)
- 7월 섬진강 도깨비 마을 견학
- 8월 방학특강 (합창, 서예와 다도, 리본 만들기, 보드게임, 석고방향제, 소방서 체험 등)
- 9월 이야기 있는 공원 만들기
- 10월 수밋들 효축제 플리마켓과 체험부스 운영
- 11월 우리아이 함께 키우기 엄마품, 마을품 교육
- 12월 1박 2일 가족 감성 캠프

서구에 축제를 하면 다 찾아다녀요 그럼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을의 축제를 할 때 설문을 많이 해요 예전에는 설문지를 다 만들어서 드렸더니 힘들어하셔서 우리가 차를 만들어 드려서 차를 마시면서 마을이야기를 하실 수 있게 한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취합을 해서 나중에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셔도 얘기를 하고 아니면 다른 행사를 할 때 덧붙여 보완하기도 하고 아니면 서구청이나 사자센터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이야기를 담아서 풀어내고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주민들과 다시 이야기 해보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저번에 도마동에서 찾아왔었는데 다도를 해달라고 해서 가서 지원을 해드린 적도 있어요. 설문을 요구하면 긴장을 하고 있는데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 해달라고 하면 편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차 맛도 모르니까 싫어했었는데 지금은 차 종류를 정해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민들레차도 추가했어요 (정림동 마을 활동가)



차와 음악 그리고 마을이야기

수밋들 축제

**[그림 3-9] 수밋들 어울벗 활동 1**

자료 : 정림동 수밋들어울벗

○ 2016년

- 4월 정림동 벚꽃축제 체험부스 운영
- 4월 수밋들 어울벗 비전 만들기
- 5월 어버이날 카네이션 코사지 만들기 특강
- 6월 이가을 작가 초청회 및 플리마켓
- 7월 방학특강 (서예, 양말인형, 큐브, 요리, 합창, 경찰서 체험, 손글씨, 주산 등)
- 9월 빈티지 페인팅 교육
- 10월 수밋들축제 체험부스 운영
- 10월 정림초등학교와 함께 마을 정화활동
- 11월 퍼실리테이터 교육

## 대전 서구, 정림동 수밋들 나눔 행사 성황

- 중도일보 2016.6.19

대전 서구는 지난 18일 정림동 수밋들공원에서 장종태 서구청장을 비롯해 지역주민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밋들 나눔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정림동 수밋들 어울벗’(회장 김화진)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후원으로 ‘2016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받아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이가을 동화작가 초청 토크콘서트와 버선열쇠고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부스, 프리마켓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 ○ 2017년

- 4월 벚꽃축제 체험부스
- 5월 수밋들 음악회
- 6월 후생원 바자회 봉사
- 7월 방학특강(미술관 관람, 민화부채, 냅킨아트, 별곡캠프 등)
- 7월 대전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모이자 사업 선정 (수스토리)
- 8월~9월 외부기관의 견학 협조 (부사동 실만한 물가, 중리복지관, 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따심)
- 9월 대전학 강의 시작(12주)
- 10월 수밋들 축제 체험부스 및 프리마켓 운영, 견학 협조(서천군 마량리)
- 11월 후생원 김장 봉사

마을스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벚꽃 축제 때 너무 먹거리만 많은 거 같아서 항상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요. 마을 어르신들 모시고 식사 대접도 하고 여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주민센터, 복지관, 교회 및 여러 기관이 모인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요 (정림동 마을 활동가)



**[그림 3-10] 수밋들 어울벗 활동 2**

자료 : 정림동 수밋들어울벗

○ 2018년

- 3월 '수스토리' 해보자 사업 추진
- 4월 정림동 벚꽃축제 체험부스 운영
- 4월 정림동, 관저동, 가수원동 공동체 체육대회 개최

얼마 전에 가수원 정림동, 관저동 세 공동체에서 모여서 체육대회를 했어요. 체육대회를 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체육대회를 재밌게 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규칙을 만들어볼까 했더니 아이들이 만들었어요 첫 번째가 저도 짜증내지 않고 울지도 않고 싸우지 않는다. 둘째가 열심히 한다. 이걸 정하고 체육대회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울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 물어봤더니 졌는데 상대애가 반칙을 해서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규칙이 있으니 울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번에 처음으로 세 공동체가 모여서 체육대회를 해봤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획회의를 7~8번을 했었어요 회의를 할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체육대회를 하고 나니까 정말 좋더라구요 (정림동 마을 활동가)



[그림 3-11] 수밋들 어울벗 활동 3

자료 : 정림동 수밋들어울벗

#### 4. 월평 1동 ‘새뜸한울’

- 월평 1동의 새마을 작은 도서관에서 봉사를 하기 위한 엄마들의 모임으로 시작됨 (2014년)
- 2015년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조례』가 제정되고 이에 근거해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 받으면서 본격적 활동 착수함
-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 문화제 개최 (2016년)
  - 무료 체험활동, 책교환전, 책을 주제로 한 그림 그리기, 공연 등
- 행복한 청소년 마을학교 사업 추진 (2016년 ~ 2017년)
  - 월평동 초등 ~ 고등학생 대상
  - 공간을 마련하여 건강한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한 활동
  - 부모교육, 마을탐방, 외부 견학, 놀이 프로그램 운영



[그림 3-12] 새뽕한울 활동

자료 : 정림동 수뽕마을넷

- 공동체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마을 활동가의 역량 부족 및 참여율 저조로 인해 사실상 활동 중단 상태임

새뽕한울은 애초에 청소년에게 공간을 마련해주고 건강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기 위한 취지로 시작되었으나 공동체 운영을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 취지대로 운영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가의 교육과 부모 교육 및 학생들의 탐방만 진행했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했으나 갑자기 활동가들의 참여 저조로 인해 사실상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활동가를 영입해서 운영하고 싶지만 지원자도 없는 상황이고, 이쪽 지역이 원룸들이 많기 때문에 활동가로 활동하실 만한 분들이 많지 않고요. 그리고 도안, 세종 쪽으로 아이가 있는 가족들은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라 더욱 공동체를 구성하기가 어려워요. (월평동 마을 활동가)

## 2절 마을 공동체 활동의 어려움

### 1. 마을 활동가의 참여와 성장

- 3개의 공동체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어려운 점을 호소한 부분은 마을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한 활동가의 참여임
- 공동체의 초창기에는 열정과 보람으로 일정 수준의 운영이 가능하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라 관심도가 저하되거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활동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활동가가 생겨남
- 새로운 활동가의 유입을 통해 빈자리를 채워야 하지만 마을 활동을 대하는 가치관 차이로 인해 겪은 갈등이 신규 활동가를 영입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함

공동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녀의 생애 주기에 따라 관심사가 변하게 되기 때문에 자녀의 성장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동체 활동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순수하게 본인의 열정과 관심, 그리고 자녀 교육의 목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이렇게 관심사가 달라지게 되면 더 이상 공동체에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메리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월급을 줄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더 같이 일해 달라고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노하우를 축적해서 연합을 더 발전시켜야 하는데, 연합의 한정된 운영진만으로는 현재 직면한 사업들의 현상 유지만으로도 벅찬 실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 외에는 따로 공동체에서 활동하실 분들을 찾아서 부탁을 드리기는 매우 어렵죠. 이게 현재 우리 연합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정림동 마을활동가)

새로 오시는 분들은 활동가라는 단어도 모르고 우리 단체를 잘 모르잖아요. 그럼 그 간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돼? 이게 돈이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처음부터 이 과정을 밟아 온 사람들은 돈 이상의 가치를 알고 있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온

사람들이라 출발점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마을에서 뭔가 요구를 할 때 하기 싫을 때가 많아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애착이 있으니까. 그런데 신입들은 그걸 몰라요 왜 해야 돼? 동원이야? 이분들이 잘못하는 건 아니지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2~3년 정도 됐을 때 이런 분들로 인해서 갈등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신입을 들이기가 두려워지더라구요 (정림동 마을 활동가)

공동체를 다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같이 마음 맞아서 활동할 인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월평동 마을 활동가)

- 또한 활동가의 역량 강화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음
- 마을 공동체는 대부분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자기 계발 욕구보다는 자녀의 성장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오랜 기간의 경력단절 상태로 인해 외부의 도움을 받기 위한 방법이나 연결점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음

공동체의 활동가 대부분은 여성이고 엄마지요. 그래서 자신의 성장보다는 아이의 성장을 더 중요시 하는 인식이 강해요. 자기성장에 대한 욕심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하지만 이 단계가 매우 어려워요. 활동가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전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와 같은 외부의 영향이 필요해요. 내부에만 있으면 이 공동체가 발전하고 있는 건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마을 활동가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공동체에 전파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개인의 비전도 생기고 공동체도 변화할 수 있어요. (관저동 마을 활동가)

저희는 6년 동안 정말 마을 활동이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활동에 대해서 재점검 해볼 수 있고 누군가가 너네 잘하고 있어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 좋겠다 해주니까 힘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서구나 사자센터에서 역량강화교육을 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걸로만은 부족하거든요. 한두 번 받아서는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0회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해요 (정림동 마을 활동가)

아이들을 위해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활동하려는 주체가 너무 역량이 부족해서 의미 있게 사업이 진행되지는 못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있어서 월평동에 계신 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진행하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월평동 마을 활동가)

- 여성친화도시와 성인지적 감수성에 대한 정보나 경험이 전혀 없었음
- 서구의 공동체 공모 사업을 많이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관저동과 정림동의 마을 활동가도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것은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성인지적 관점으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생각해 본 경험은 없다고 하였음
- 그러나 다양한 마을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겪은 경험이 있는 활동가는 기본적으로 성인지적 감수성을 쉽게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음

우리가 활동을 많이 했어도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이게 참 좋은 사업이고 우리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은데 이거 자체를 모르는 게 안타깝다. 홍보의 문제인가요? (정림동 마을 활동가)

여성친화도시를 얘기하셨을 때 도대체 여성친화도시가 뭘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서 여성이 생물학적 여성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여성의 돌봄의 정서를 서로 나누는 걸 이야기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함께 해나가면서 단순한 아이템이 아닌 패러다임의 전환점을 갖는 돌봄의 의미가 담겨 있는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동체 하면 따뜻함, 평온함, 함께 하는 것 이런 의미를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여성친화도시의 돌봄적인, 정서적인 의미가 많이 가미되는 시대가 도래 하는가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쁩니다. (관저동 마을 활동가)



## 2. 일이 되어버린 마을 활동

- 마을 공동체 활동을 2~3년 이상 지속하다 보면 고정적으로 개최하게 되는 행사들이 생기고 이 행사에 대한 부담이 일로 다가오게 됨
- 지자체의 사업비 집행과 정산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활동가는 더 큰 부담을 받게 됨.
- 이와 더불어 공동체 내부의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업무 처리에 대한 비교 및 경쟁 관계가 성립될 경우도 있음

공동체는 사람이 중심이에요. 사람이 없으면 공동체는 와해되기 마련이죠. 사람과 사람의 밀접한 관계를 중심으로 활동해야 하는데 일에 치이다 보니 지치게 되더라구요. 따뜻하게 보듬어줘야 할 공동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낯설고 비교당하는 차가운 조직이 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공동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활동가는 본인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 사명감만으로는 꾸준히 활동하기가 어려워요. 공동체를 구성하는 초기에는 사람을 중심으로 의욕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이라는 인식이 커지게 되고 “일”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으로 구분하게 되고 개인의 비전을 찾지 못하게 되면서 지치게 되는거 같아요. 또 지치게 되면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관심사의 변화에 맞춰 능동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구요 (관저동 마을 활동가)

지금 지쳤어요. 오전에도 공동체 교육단에서 교육하고 왔는데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힐링이었어요. 그냥 놀자는 의미가 아니라 음악이나 미술에 관심이 있으면 그와 관련된 공동체나 기관을 방문하는 거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공동체를 할 수 있었던 건 복지관에서 지원을 해줄 때 너네가 하고 싶은걸 다 해봐라 해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족스럽게 하다 보니까 마을로 대상을 넓혀서 활동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공모사업을 받으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사업 계획서를 쓰는 것도 너무 까다롭고 사업을 집행할 때 너무 제약을 받아요. 게다가 나중에 정산할 때 너무 힘들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돈 이렇바엔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예요 세금으로 쓰는 돈이니까 철저하게 해야 하는 건 맞지만 공동체의 활동을 너무 제약하지 않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자율성은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동체는 아이디어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해마다 같은 아이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동안 한 100개의 아이터를 만들어 냈는데, 작년부터는 아이디어가 고갈되는 느낌이에요. 작년에는 사업비를 안 받아서 견학도 없었고 교육도 없었거든요. 시나 구에서 주는 사업비는 견학을 안 좋게 생각하니 사업비 받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정림동 마을 활동가)

사업비 사용하는데 자유롭게 쓰면 좋겠어요. 항목별로 제한금액이 너무 복잡해서 증빙서류 준비해야 하는걸 보면 사업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월평동 마을 활동가)

### 3. 경제적 부담

-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가정에서 필요한 경제력의 규모도 커지게 되면서 경력단절을 감수하며 육아에 매진하던 엄마들이 생활비를 벌어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됨.
- 마을 활동의 경험과 노하우를 신규 활동가에게 전달해 주기 위한 시간적 여유도 없이 마을 활동을 그만 두는 활동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움

지금까지 계속 우리는 서구청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받아서 운영을 했다. 그러나 공모사업비에는 인건비는 전혀 없다. 그래서 운영 주체들에게 활동비를 일체 지급할 수가 없다. 그래서 활동가들이 사업을 하면서 더 지치게 되는 이유다. (관저동 마을 활동가)

그분들이 나가는 이유가 활동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경제적 문제 때문에 그런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활동을 같이 하다가 지금은 돈벌러 가야 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사업비 사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융통성은 있어야 한

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뭔가를 제조하거나 판매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활동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식대, 간식비, 교통비 이 정도 밖에 안되는 데도 갈수록 제재가 너무 심해요. 이것도 활동에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지원이 없다보니까 회장님은 회원들에게 너무 미안한 거죠. 그렇다고 회장 돈을 계속 쓸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보니 고민이 커지는 거예요.(정림동 마을 활동가)

다들 일해야 하니까 활동비라도 주면 다른데 일 안하고 공동체 활동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월평동 마을 활동가)

#### 4. 소통의 어려움

- 공동체 활동은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과 함께 하는 활동임. 필연적으로 공동체 외부의 기관 및 조직과도 함께 사업을 진행하게 됨. 지역 주민 자치위원회, 동 주민센터, 구청, 시청 공동체 지원조직 등 다양한 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함
- 조직 간의 소통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보니 공동체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매번 불필요한 모임과 설명을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음

지역자생단체들과 소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민주적 의사결정보다는 무조건 과정은 필요 없고 결과를 중요시 하시더라구요. 기획이라는 게 없어요. 동이나 구에서 기획을 하면 그대로 행동만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같이 일하기가 매우 힘들었죠. 그런데 같이 일하다보니 정이 들더라구요. 결과가 좋다 보니까 많이 놀라시더라구요. 이분들도 처음 해보신건데 1500여명이 모여서 축제가 진행되니까 내년에도 하자고 하시더라구요 (관저동 마을 활동가)

청소년문화제를 하다보니까 청소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말 어른들의 입장에서만 바라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또 영화제를 한번 하면

3~500명 가까이 오시는데 항상 느끼는 것은 영화선정이 중요하다. 마을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해야지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걸 느꼈어요. 좀 무서운 영화를 틀었다가 많이 혼났습니다. 모든 해답은 주민이 갖고 있다. 마을 활동가는 도와주는 역할이다. 라는 것을 크게 느꼈습니다. (관저동 마을 활동가)

다양하고 특색있는 마을 문화를 만들면 마을이 풍성해지고 주민 삶의 질이 올라가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공무원과 마을 활동가들과 주민자치위원들 모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하죠. 같은 활동이나 최소한 견학 등이 자주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융합될 수 있어야 해요. (정림동 마을 활동가)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홍보를 위해서 협조를 요청했는데 학교에서는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공문을 통해 처리해야 해서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럼 교문 밖에서 하겠다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벌써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알게 됐는데 알게 된 이상 어떻게 하게 둘 수 있겠냐? 하시더라고요.(월평동 마을 활동가)

## 5. 지원 체계의 지속성 부족

- 공동체 스스로 발전해서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기까지는 물질적·시간적으로 많은 자원을 소비하면서 활동가의 역량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함. 이 과정에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거나 자립 기반을 마련하지 못해 무너지는 공동체가 대다수임
- 행정은 단기적 성과에만 중점을 두는 지원 정책은 지양하고 활동가의 역량 강화부터 단계별로 공동체를 강화 할 수 있는 중·장기적 지원 정책이 필요함

주변 여건에 따라 중단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공동체 연합은 대전에서 처음이거든요. 이런 단체가 갖고 있는 역량이 굉장히 큰데 이런 인적 인프라는 구축이 되어 있으나 시스템적인 것은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주민 수요 조사를 통해 서로 협력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는 거죠. 마을의 특성을 무시하지 말고 마을 주민들의 관심을 모아서 관의 지원과 마을의 인프라를 융합하는 시범사례를 하나 만드는 거죠. 성과는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일단 시범 사업을 해보는 거예요. 거기서 배우는 게 되는 걸로 나중에 더 확실하고 안정된 사업에 적용할 수도 있잖아요 (관저동 마을 활동가)

동사무소 직원들도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건 이분들은 우리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이분들은 얼마 안 있다 떠날 분들이다 보니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을에서 오래 활동하신 분들이 꾸준히 마을을 돌보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림동 마을 활동가)

서구에서 마을 도서관을 마련해줬어요. 그런데 그 후에 지원금은 전혀 없어요. 다 마을에서 십시일반 후원금을 내서 운영하고 있어요. 공간은 줬지만 모든 운영은 자원 활동이에요. 이번에도 4월 13일에 잔치하는데 자비를 털어서 해요. 이렇게 12년을 유지하고 있는데 보통 역량으로는 못하잖아요. 활동가 인프라는 구축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더 크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관저동 마을 활동가)

서구청 담당 공무원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너무 자주 바뀌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 돼서 뭔가 하려고 하면 바뀌니까 또 다시 이해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래서 마을 활동에 대한 정책 기조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없다면 담당 주무관의 의지, 관의 의지에 따라 수시로 정책이 바뀌어 버리는 거 같아요. 꾸준함이 없어요. (정림동 마을 활동가)

## 6. 활동 공간 마련의 어려움

- 공동체에 있어 활동 공간은 소통과 논의의 장소이자 마을 주민들을 대

상으로 다양한 모임을 할 수 있고, 행사를 펼칠 수도 있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음

- 관저공동체연합의 경우 관저품앗이공동체에서 활동가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든 공간을 활용하면서 공동체가 급격히 활성화 되었고 정림동 수릿들 어울벗의 경우는 정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간을 무상 대여해줌으로써 마을 활동을 시작 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였음
- 그러나 초기에 마련된 한정된 공간으로는 점점 늘어나는 구성원 수와 다양해지는 사업들로 인해 금방 포화상태가 되기 마련임
- 때문에 마을 내의 행정기관이나 복지기관, 학교의 협조로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관련 기관이 잘 협조를 해주지 않게 되면 공동체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임

공간에 대한 문제, 공간은 항상 나오는 문제다. 공원 사용 문제도 있다. 공원을 사용할 때 신청서를 내고 사용료도 내는데 마을에서 공공성이 인정되는 행사는 무료로 사용하게 해주면 좋겠다. 또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안 된다고 하는데 축제 때 하는 체험부스에서 이뤄지는 플리마켓 정도는 이해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주민들은 플리마켓이 좋아서 주기적으로 열어달라는 요청도 있다. 그런데 공원 사용이 어렵고 사용료도 내야하고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자주 열지 못하고 있다. 공원 하나 사용하는데도 너무 힘이 든다. (정림동 마을 활동가)

### 3절 소 결

- 연구자가 살펴본 마을 공동체의 구성원은 100% 여성,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었음. 참여 주체가 너무 일방적인 구조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는 환경이지만 마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민을 대상으로 특색있는 문화를 생성하고 공유하는 것을 공동체의 목표라고 생각한다면 경제활동을 위해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직장인들보다는 마을 안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많은 여성, 엄마들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것이 돌봄과 보육의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음
- 그러나 그렇다고 활동가를 돌봄과 보육의 기능만을 부각시켜 마을을 위해 봉사하는 여성이라는 왜곡된 이미지로 바라보면 안 될 것임. 우리 마을의 엄마들과 활동기들은 자녀의 양육과 가정의 편안함을 위해 자기실현의 기회를 스스로 제한한 희생자들임. 마을 활동가라는 타이틀을 걸고 다른 이들보다는 한발 늦게 사회에 참여에 동참했다는 것을 이해하고, 같이 성장하기 위해 한걸음 기다려주는 배려를 발휘할 때임
- 다른 한편으로 그 동안 마을 활동가들이 살기 좋은 마을만을 생각해왔다면 이제는 시야를 조금 더 넓혀 여성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생각해봐야 할 때임. 성인지적 관점으로 마을 사업을 바라봄으로써 성평등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마을 활동가로 인해 각 마을마다 구성원이 성평등을 이해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갖게 된다면 여성 친화적 마을 공동체로 시작해서 여성 친화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상상이 현실로 다가올 것임

## 여성 친화적 마을 공동체

### 활성화를 위한 제안

1. 추진 주체의 역량 강화
2. 마을 공동체 사업 지원 체계 개선
3. 젠더 거버넌스의 구축

## 4장





## 1절 추진 주체의 역량 강화

- 인적 자원은 어떤 사업에서든 중요한 요소임. 그러나 마을 공동체는 인적 자원 없이는 시작도 할 수 없을 만큼 인적 자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임
- 마을 공동체 활성화 추진 주체는 마을 주민 및 활동가를 포함하여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보다 넓게는 중간지원조직의 구성원과 지자체장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음
- 마을 공동체의 모범 사례<sup>2)</sup>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마을 공동체를 이끄는 핵심적인 리더가 존재하고, 마을 주민의 이해가 높으며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주민들의 역량도 높아지는 특성을 보임(김현호, 2013)
- 이런 특성은 마을 공동체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외부적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했음(김현호, 2013)
- 이런 사례를 통해서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의미함(김현호, 2013)
- 현장에서 뛰는 활동가들도 공통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현재 행정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는 실제 공동체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교육이 많고 교육 횟수도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서구의 공동체가 주기적으로 모여 공동체 활동에 대한 논의를 하는 서구마을넷은 부족한 교육의 기회를 채우기 위해 서구청 공모사업으로 공동체 역량강화 교육을 신청하여 공모사업 대상자와 활동가들에게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이는 활동가들의 자기 계발 욕구를 행정기관에서 충분히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2) 김현호(2013)의 연구에서는 진안군의 5단계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과 성북구 장수마을의 도시 아카데미의 사례를 근거로 하였음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니까.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마을학교 하면 잘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하면 잘 할 수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인프라는 구축이 되어 있다는 말 이죠. 그런데 더 크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관저동 마을 활동가)

서구청이나 어디 가서 역량강화 교육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뭔가를 만들어 내는 이런 것만 생각을 하세요. 공동체에 가서 그 공동체가 하는 활동들을 같이 좀 보려고 해주고 사명문이라던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해 주시는 게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역량강화교육은 돈 주고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거 말구요. 좀 길게 집중적으로 최소한 8~9차정도로 정말 할 수 있는 걸 찾아보고 배울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정림동 마을 활동가)

- 활동가에 대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 교육도 중요함. 또한 공동체 담당 공무원은 장기간 업무를 담당 할 수 있도록 순환 보직에서 예외로 하는 시책도 있어야 함. 공동체 사업은 단기간의 투입으로 원하는 산출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임. 활동가들의 역량만 강화시켜봐야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함
- 결론적으로 추진 주체의 역량 강화 교육은 공동체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각 구별, 또는 공동체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되 우선적으로 교육 대상자와 협의하여 가장 필요한 교육을 단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교육 과정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도 포함시켜야 함

## 2절 마을 공동체 사업 지원 체계 개선

### 1. 중간지원조직의 확대

- 현재 대전시는 2013년 2월에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를 제정하여 참여와 소통으로 서로 믿고 배려하는 시민공동체를 통한 사회 통합과 마을자치 구현을 위해 사회적 자본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에는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기본 원칙들을 제시하고 시민의 권리와 역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사회적 자본의 확충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제13조)
- 이 조례에 따라 2013년 10월부터 대전광역시 사회적 자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음
- 대전시 사회적 자본지원센터는 대전시의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 형성, 시민참여 활성화 촉진, 민관 협력형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교육 및 기획사업, 마을 활동가 발굴 및 육성, 공유와 나눔을 통한 공유 네트워크 조성, 마을 공동체 만들기 인프라 구축과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대전시의 사회적 자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대전시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 1개의 중간 지원 조직만으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전시의 모든 공동체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음
- 마을 활동가들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음

각 구별 공동체 지원 활성화를 위한 센터를 만들어야 해요. 각각의 센터에 활동가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합류를 해서, 물론 여기에는 공동체 활동가만 참여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관에서도, 전문가 등도 투입되어서 하나의 구에, 각 동별로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의 대전 사회적 자본지원센터 한 곳으로만은 턱없이 부족해요. (관저동 마을 활동가)

- 따라서 각 구별·동별로 마을 공동체 지원 기관의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016년에 대전시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에서 5개 구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교류를 시작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상황임. 그러나 구별 네트워크만으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각 마을 공동체의 현장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공동체의 지근거리에서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지원기관이 필요함
- 그러나 각 동까지 지원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면, 적어도 각 구에 중간 지원 조직을 설치하고 그 조직에서 각 동마다의 특색에 따른 활동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최소한 각 구별 중간 지원 조직을 설치하고 광역 단위에서의 대전시 사회적 자본지원센터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즉 마을 공동체 지원 조직의 거버넌스를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마을 공동체와 행정기관, 중간 지원 조직을 아우르는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다행히도 대전시는 2017년 12월에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대전시장에게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적극적 지원과 주민의 역량강화를 지원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고 5년 단위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음
-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규정(제20조)도 마련되어 있어 앞으로 대전시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음
- 서구도 2018년 1월에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제11조에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어 마을 공동체의 중간 지원 조직 설치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다만 두 조례 모두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 성별에 대한 위촉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임

## 2.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중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확대

- 대전시 서구는 2013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고 2014년부터 2018년 까지 5년간 서구를 여성 친화형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왔음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5대 목표로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평등실현’, ‘안전과 편의 증진’,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로 설정하고 2018년 6월 현재까지 총 66개<sup>3)</sup>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32건, 미집행 사업 6건, 진행 중인 사업 28건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표 4-1] 5대 목표별 사업 추진 현황 분석

목표별 (2014년~2018년)	사업 수	완료 사업	미집행 사업*	진행 중 사업**
1.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구축	9	4	2	3
2.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평등실현	10	3	1	6
3. 안전과 편의 증진	23	14	1	8
4.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	11	6	0	5
5. 여성 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13	5	2	6
계	66	32	6	28

자료: 대전시 서구청, 여성친화도시 시행계획에서 재구성

\* : 사업 추진계획은 수립하였으나 예산 미확보로 중단된 사업

\*\* : 2018년 6월 현재 추진 중인 사업

- 서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중에서 지역 마을 공동체와 관련된 부분은 ‘여성 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목표 사업들임
  - 5년간 총 13개의 사업을 발굴하고 2개를 제외한 11개의 사업을 완료 혹은 진행 중에 있음
  - 11개의 사업 중에서 단기 사업은 2개였으며 나머지 9개의 사업은 최소 2년 이상의 장기 사업들임
  - 이 중에서 마을 공동체와 연관 있는 사업은 아쉽게도 4건임. 이 4건도
- 3) 66개 사업은 장기간 지속되는 사업은 1개의 사업으로 분류하여 산정한 결과임

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사업이 아닌 단순한 공간 조성 사업이었음. 특히 '여성친화 행복 소리 공간 조성' 사업은 구청사 내의 틈새 공간을 활용하여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었는데 공간 조성 측면에서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마을 공동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음

- 이처럼 5년간 총 66개의 사업 중에서 단 4건의 사업만이 공동체 관련 사업으로 분류됐다는 점은 서구의 여성친화도시 사업에서 공동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는 부분임
- 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공간 조성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친화도시의 개념이 등장한 것을 고려하면 1차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간에는 기존의 남성 중심의 도시 설계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약자에 속한 여성이나 노인, 어린이를 고려한 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음
- 그러나 5대 목표 중 하나로 지역 공동체의 강화를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사업은 너무나 부실함
- 2019년부터 시작할 제2기<sup>4)</sup> 여성친화도시 조성에서는 여성의 지역참여 활성화의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또한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의 확대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는 현재 지역공동체과와 여성가족과로 나뉘져 있는 마을 공동체 지원업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를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음. 실무추진단을 통해 부서별 협력 체계 운영 중에 있으나 마을 공동체 지원 업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는 보다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이와 함께 마을 공동체와의 소통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 구성원으로 분야별, 특성별, 마을별 마을 활동가를 위촉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함

---

4) 대전시 서구는 2018년 12월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만료됨에 따라 제2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준비하고 있음

### 3. 중·장기적 계획을 바탕으로 공동체 지원체계 구축

- 마을 공동체의 활동은 마을의 구성원들이 마을의 특색을 살린 문화를 만들고 마을 주민의 통합을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마을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의 달성은 지역 사회의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사회적 가치는 활동가들의 활동과 의지에 의해 유지되고 재생산되는 순환의 형식을 가져옴
- 그러나 하나의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를 공유 하는 데에는 상당히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
- 게다가 마을 활동가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생활 여건에 관계없이 꾸준하게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가 수는 많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움
- 따라서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마을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의 효과에 따라 수정과 응용을 할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이 기본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함

### 4. 마을 활동가의 처우 개선

- 마을 활동가에 대한 적절한 처우와 보상의 문제는 인터뷰를 진행한 세 공동체의 문제만이 아닌 전국의 모든 마을 공동체에서 해결을 원하는 문제임
- 마을 공동체의 비전과 목표를 보고 의욕적으로 시작하는 활동가의 대부분은 5년 안에 마을 활동의 참여율이 대폭 줄어듦. 그 이유는 앞서 3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적 부담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서임
- 초기에는 마을 공동체 참여로 인한 보상이나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치가 크게 높지 않더라도 자녀가 성장하는 마을 주변을 내 손으로 바꾼다는 자부심과 자기 성장에 대한 관심 때문에 적극적인 활동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자녀의 성장에 따라 경제적인 압박이 시작되면 자신의 활동을 조절할 수밖에 없음

- 또 다른 이유는 마을 활동이 창의적이지 못하고 매년 반복되는 행사준비로 채워지게 될 경우 재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며 보상도 없는 일로써 부담을 갖게 되는 경우임
- 따라서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그동안의 경직된 사업비의 집행 방식을 유연하게 바꾸려는 시도가 필요함. 여기에는 활동가들의 활동비 지급과 간소화된 사업비 정산방식 등이 포함됨

공모사업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일정 조건을 만들고 조건을 충족하는 활동가에게 적절한 인건비를 지급한다면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어요. 마을활동가 경력이나 특정 사업 참여 횟수 등으로 기준을 정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면, 1차적으로는 마을 활동가의 신규 유입을 유도하고 2차적으로는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화된 마을 활동가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거죠. 자신의 마을을 위해 활동하는 것에 대해 인건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으나 활성화되는 공동체가 많아질수록 연계되어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하면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기 위한 시작점이 정말 필요한 거 같아요. (관저동 마을 활동가)

제가 6~7년 간 우리 마을에 자본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왔지만 이분들이 머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문직인거잖아요. 이분들이 없어진다는 것은 전문성을 상실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안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마을 활동에 대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마을 활동가에 대한 일자리가 창출되면 좋겠다. 또 지식 공유에 대한 가치 산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즉 활동비라든가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정림동 마을 활동가)

-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사업비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에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인건비를 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행정의 경직된 구조에서 나오는 악습일 따름임. 건물 공사, 지자체 축제, 마을 공동체 행사가 각각 다를 것이 없음. 마을 공동체의 사업 지원금만 유난히 인건비와 활동비의 사용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시스템은 이해하기 어려움.
- 마을 공동체의 사업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목적 없이 공동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님.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목적을 가진 사업을 지원하려면 사업을 실행하는 주체에게 정당한 보상을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 그 동안 “마을 공동체는 단순히 마을 내 경력단절 여성들이 모여 소일거리 하듯이 이런 저런 작은 일들을 하는 것이니까 인건비는 필요 없고 작은 활동들을 할 수 있게 사업비만 지원하면 되겠다”라는 인식이 만연되어 왔음
- 그러나 이제는 마을 공동체를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져야 함. 경력이 단절된 엄마들이 주축이지만 그 수준이 결코 낮지 않으며 약간의 교육만 더해진다면 전문가로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음
- 단기적으로는 활동가의 소속 마을의 발전에만 사업비를 사용한다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음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마을들의 활동가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유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가능성을 고려하고, 이들이 서구 지역 주민의 삶을 제고 시킬 수 있는 특색있는 문화를 만들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함
- 즉 단순히 마을 공동체 활동가를 “봉사자”로서 볼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한 “예비 전문가”로 대우하고 투자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함
- 따라서 한순간에 지원 체계와 인식을 변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몇 개의 공동체를 선별하여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시범 사례로 운영을 해볼 필요가 있음.

### 3절 젠더 거버넌스의 구축

#### 1. 젠더 거버넌스의 정의

- 원숙연 외(2006)는 젠더 거버넌스를 ‘여러 가지 형태로 발현되고 사회적으로 강화되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차별적 관계를 완화, 개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관련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및 관계구조’라고 정의하고 있음
- 김영주(2012)는 정책에서 젠더 이슈가 주류화 되고 그 과정에서 성 평등한 참여가 이루어지는 협력 체계로 정의하고 있음
- 김영신(2017)은 젠더 이슈를 주제로 행정, 의회, 시민사회, 현장 전문가 등이 성차별적 문제를 해소시켜 성 평등한 사회를 조성해 가기 위한 협치 구조로 정의하였음
- 안태윤 외(2016)는 ‘정부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과 참여를 통해 젠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다소 폭넓게 정의하고 있음

#### 2. 여성 친화적 마을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젠더 거버넌스



[그림 4-1] 여성 친화적 마을 공동체를 위한 젠더 거버넌스

-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는 지역 사회의 발전과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것에는 논의의 여지가 없음
- 그러나 그 동안은 마을 공동체의 성공 사례라는 성과에 집중한 나머지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집행에는 무관심하였음
- 행정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이고 여기서의 시민은 특정 성이나 계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이제는 효율적인 경제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소외되고 외면당했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이는 곧 성 주류화된 정책 환경을 의미함
- 성 주류화 전략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적절한 추진 구조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논쟁의 과정에서 이론이 제기되지 않는 두 개의 방향은 성 주류화는 성 평등 추진 전략이라는 점과 성 주류화는 그 자체로 거버넌스 모델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임 (최유진, 2014)
-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한국의 성 주류화 정책 환경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정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음.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5대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해 놓고 있는 만큼 대다수의 구성원이 여성으로 이루어진 마을 공동체의 특성 상 여성 친화적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는 여성친화도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 될 수 있음
- 또한 '여성친화' 혹은 '성 주류화' 정책이 지역 정책으로서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추진 주체간의 튼튼한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여성 친화적 마을 공동체는 기초지자체와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이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성 주류화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주체임
- 때문에 여성 친화적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일반적으로 집행되어 왔던 행정의 하향식 정책 지원이 아닌 행정과 공동체 활동가, 전문가 집단 등이 젠더 관점을 가지고 소통하며 협조하는 젠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마을 문화 만들기에 주  
력해야 함

관이 주도한다고 할 때는 뭐가 문제냐면 관은 지금까지 해왔는데도 잘 안  
됐다는 것은 민관 협치를 이루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로 주도를 하고 구미에  
맞는 것들만 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민에서 주도하는 공동체  
들과 협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형화된 관 주도의 행정은  
변화되는 것도 잘 적응하지 못한다. 민과의 협치라는 것은 동등한 위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동등한 위치에서 문제가 뭐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  
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대화를 하는 창구가 매우 필요하다. (정림동 마을  
활동가)

- 젠더 거버넌스는 단시간에 만들어 낼 수 있는 성과가 아님. 구성원들의  
지속적 참여와 교육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구축될  
수 있음. 따라서 사업의 성패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대전시  
서구의 특성에 맞는 젠더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목표 아래 장기적  
인 계획을 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노력이 필요함

## 참고문헌

- 김경희, 나성은(2017), 한국 성 주류화 정책과 젠더 거버넌스의 특징,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3979-3996.
- 김영주(2012), 충남 성 주류화 젠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추진 주체들의 역할과 과제, <충남 성 주류화 기반구축을 위한 포럼>.
- 김학실(2014), 지역공동체 위기에 대응한 공동체주도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10(5), 179-201.
- 김혜정(2017), 부산지역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성과와 한계. <여성연구논집>, 28, 31-53.
- \_\_\_\_\_(2018), 젠더 거버넌스 관점에 본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에 대한 비판적 분석, <여성학연구>, 28(1), 215-249.
- 박병춘, 최현석(2012), 지역공동체 실태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풀뿌리운동에 기반을 둔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0(3), 1-22.
- 박병춘(2012),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모형 및 기본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0(2), 1-26.
- 박혜은(2017),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여성친화 적용 요소 개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18(6), 79~96.
- 윤일성(2006), 지역사회 공동체 재활성화와 민간협약, <지역사회학>, 8(1)
- 이재열(2006), 지역사회 공동체와 사회적 자본,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23-49.
- 원숙연, 박진경(2006), 젠더-거버넌스의 가능성 탐색: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2(4), 85~124.
- 임혜경(2018),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의 한계와 가능성,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83-215.
- 조연숙(2015), 마을공동체의 젠더이슈를 통해 본 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참여자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제15권 3호, 83~100.
- 최유진(2014),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젠더 거버넌스에의 함의,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559-572.
- 김영신(2017), <젠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광주지역 여성단체 활동 강화 방안 연구>, 광주여성재단.

김현호(2013),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재목 외(2014), <대전시 마을공동체의 현황과 실태조사>.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지원센터.

안태윤 외 3인(2016), <젠더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사례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여성가족부(2010), <여성친화도시 사업 계획>.

\_\_\_\_\_ (2015), <2015 여성친화도시 사업가이드>.

주혜진 외 3인(2013),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계획 및 발전방향 수립>, 대  
전광역시 서구청.

주혜진(2015),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광역·기초자치단체 협력 방안>, 대전발  
전연구원.

태희원(2017), <충남 마을만들기 젠더 거버넌스 실천방안>,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한경현, 최나리(2015), <인천시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체계 연구>, 인천여성가족재단.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부록 1.

###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시행 2018. 4. 20.] [대전광역시조례 제5116호, 2018. 4. 20.,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가 참여와 소통으로 서로 믿고 배려하는 시민공동체를 통한 사회통합과 마을자치 구현을 위하여 사회적자본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자본”이란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역량으로서 신뢰, 소통, 협력, 규범, 네트워크 등 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2. “시민공동체”란 사회구성원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면서 공공선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개인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대전광역시는 이 조례에 따라 사회적자본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모든 정책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되도록 할 것
2.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계층이 정책결정 과정에 차별 없이 참여하도록 할 것
3. 지역사회 구성원은 사회적 책임의 확산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할 것
4.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사업은 시민공동체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
5.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사업은 시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

**제4조(시민의 권리와 역할)** ① 시민은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



과 시책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시민은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여 협력적 시민공동체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하여 시정에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자본 확충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며 시민공동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시책이나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자본 확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의 지역특성에 맞는 시책방향 및 전략
2. 추진체계와 기반구축
3. 민·관 협력 네트워크의 구성
4. 그 밖에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자본 확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1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자본 확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주요 시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사회적자본확충 지원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사회적자본 확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3. 사회적자본 확충 지원 시책 및 사업
4. 제1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연구센터의 설치·운영
5. 제13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자본 확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과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7.10., 2014.12.31., 2018.4.20.>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사회적자본 확충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또는 활동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인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④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과 위촉위원 중 1명을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 위촉위원인 부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7.10., 2014.12.31., 2018.4.20.>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공동체 과장이 된다. <개정 2014.12.31., 2016.4.12., 2018.4.20.>
-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 ⑨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회적자본 연구센터)** ① 시장은 사회적자본의 확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역의 사회적자본 진단 및 사례 조사
  2. 사회적자본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및 평가·분석
  3.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중장기 전략방안 연구
  4. 그 밖에 사회적자본 확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연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④ 시장은 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적자본 지원센터)** ① 시장은 사회적자본의 확충을 위하여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지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센터는 이와 기능이 유사한 센터나 기구 등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4.17., 2016.12.30.>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2. 민·관 협력 증진
3. 사회적자본 확충사업의 지원
4.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공익활동의 자료수집 및 홍보
5.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 및 공익 활동가의 발굴·육성
6. 시민공동체 조직 간의 연계와 협력에 관한 사항
7. 시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 및 협력

8.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조례」 제3조에 따른 사업 중 공동체 활성화사업
9. 그 밖에 사회적자본 확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지원)** 시장은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주민조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4171호, 2013.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198호, 2013.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374호, 2014.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

⑭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4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각각 “도시재생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도시재생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제7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도시재생정책과장”으로 한다.

⑮~(64) 생략

부칙 <조례 제4445호, 2015.4.17.>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원센터는 이와 기능이 유사한 센터나 기구 등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4) 생략

(45)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6)~(113)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4694호, 2016.4.12.>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

(12)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항 중 “도시재생정책과장” 을 “도시재생과장” 으로 한다.

(13)~(26) 생략

부칙 <조례 제4833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116호, 2018.4.2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본부장” 을 “자치행정국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재생본부장” 을 각각 “자치행정국  
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 도시재생과장 “을 “지역공동체과  
장” 으로 한다.

⑫ 생략

## 부록 2.

###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

[시행 2017. 12. 29.] [대전광역시조례 제5085호, 2017. 12. 29., 제정]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공동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적·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지는 시민 전체를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 또는 같은 법 제4조의2제 4항에 따른 행정동

나. 그 밖에 시민들이 경제·문화·생활기반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

2. “지역공동체 활성화”란 주민 간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적·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도모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

나. 지역공동체의 생활환경 개선

다. 주민의 복지 향상 등 삶의 질 개선

라. 지역자원의 개발 및 지역문화 창달

마. 그 밖에 주민 간 상호작용 및 유대감·소속감 증진을 위한 활동

3. “지역공동체조직”이란 지역공동체의 주민 전체 또는 일부가 해당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결성한 조직을 말한다.

4.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공동체와 지역공동체조직은 주민의 주도와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 지역공동체와 지역공동체조직은 해당 지역 주민 전체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3. 지역공동체는 주민 및 다른 지역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번영을 추구하여야 한다.
4. 지역공동체활동은 해당 지역사회와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자율적인 학습과 역량강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정치 및 종교 활동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지역공동체와 지역공동체조직 등은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정 종교를 위한 교리전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2. 지역공동체 및 지역공동체조직의 현황과 여건 분석
  3. 지역공동체 또는 지역공동체조직의 자산 현황과 활용 방안
  4.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시책이나 다른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계별 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
2. 사업별 행정적·재정적 지원 계획
3.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행정협의회)**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재원 조성)** 시장은 지역공동체조직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 등 재원을 조성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①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2.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마을 순환 경제 활성화 사업
3.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가 육성 등 교육사업
4. 생활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사업
5. 마을경관·생태환경의 보전 및 개선사업
6. 주민의 주거 및 복지증진사업
7.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8.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2조(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총괄·조정
2.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시행
3.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 평가
4.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도시재생본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지역공동체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3. 지역공동체 활동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공동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 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sup>1</sup>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센터는 이와 기능이 유사한 센터나 기구 등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원 및 실행
2.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초조사·사업분석·평가·연구
3. 지역공동체 민관협력 네트워크 형성

4. 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5.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원관리
6.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구성)**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조직을 구성하되, 구체적인 인력운용과 조직구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23조(위탁)**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085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록 3.

##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

[시행 2018. 1. 1.] [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1502호, 2017. 12. 18.,  
일부개정]

서구 (총무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가 주민간의 좋은 관계망 형성으로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마을자치 구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회적자본의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자본”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하는 사회적 역량으로서 신뢰, 소통, 협력, 네트워크, 규범 등 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자본 확충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형성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한다.
3.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4. 지역사회 구성원은 사회적 책임의 확산을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자본 확충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사회적자본 확충 사업에 적극 참여·발전·확산시키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시책이나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사회적자본 확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사회적자본 확충 추진체계와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3. 협력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사회적자본 확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계획
2.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사회적자본 확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주요 시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사회적자본확충지원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사회적자본 확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자본확충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3. 사회적자본 확충 지원 시책 및 사업
4. 그 밖에 사회적자본 확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2. 사회적자본 관련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대표자
3. 사회적자본 확충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 ⑩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⑪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사회적자본 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사회적자본의 확충을 위하여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자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기초조사, 사업분석·평가
2. 민·관 협력 증진
3. 사회적자본 확충사업의 지원
4.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공익활동의 자료수집 및 홍보
5.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의 발굴·육성

6.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 및 협력

7. 그 밖에 사회적자본 확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18>

**제13조(지원)** 구청장은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주민조직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제1162호, 2013.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502호, 2017.12.18>(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위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회동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된 사무는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기능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 대전광역시 서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민간위탁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로 한다.